



지난해 조지아공화국에서 10개월간 머물렀던 한희원 작가가 시화집 '이방인의 소묘-트빌리시에서 보낸 영혼의 일기'를 내고 11일부터 7월7일까지 김넷과서 기념 전시를 연다.

“외로움과 자유가 품어낸 그림과 시”

서양화가 한희원 첫 '시화집' 발간
11일~7월7일 김넷과서 기념전시
조지아공화국서 작업한 300여점
작곡가 한보리 곡 붙여 시노래 음악회



지 않았다. “양림동 같은 오래된 공간을 좋아하는 저에게 맞춤형 장소였어요. 무엇보다 노래와 춤 등 다양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외롭기도 했어요. 우울증 걸리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림 그리고, 시 쓰는 일이었어요. 유희는 한국어로 가치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작품을 맡아서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크릴로 작업을 했죠.”

의 시집 발간을 제일처럼 좋아해준 오랜 친구 광재구 시인과 박남준 시인, 가수 장사익, 트빌리시에서 밤늦게 포드주를 마셨던 배우 정동환이 추천글을 썼다. “시집을 내는 꿈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인 친구들에게 미안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이 시 한편을 쓸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환갑 땀 시집 한 권 정도는 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해 한희원미술관을 열면서 뒤로 미뤄졌죠.” 그는 사람 복이 많다. 작가에게는 드문 10개월간의 여정도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들이 “작업에만 몰두하라”며 그의 등을 떠밀고 지원을 했기에 가능했다. 오랫동안 만나온 작곡가 한보리에게선 “행의 시를 노래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음유시인 한보리와 한희원 시의 만남-길에서 만난 사람들” 공연을 7월 3일 역시 사랑하는 후배들인 진진, 오영목, 나무가 참여한 가운데 열 계획이다. 가을에는 포인 콘서트와 출판기념회도 연다.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던 그는 시에 대한 갈망이 컸다. 재수시절 혼자 시를 끄적이기 시작했다. 평양 송실대 양주동 박사의 1호 제자로, 춘원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동아일보에 희곡으로 등단했던 아버지(한이적)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지도 몰랐다. 큰아버지는 환경직 목사다. 삼수 하던 시절 누나가 “이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서 새 소리가 들려. 너도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라며 찾아와보고 알려준 곳이 오승운 선생이 운영하던 백제화실이었다. 그곳에서 조진호 작가 등을 만나 죽기살기로 그림을 그렸고 조선대 미술교육학과에 들어갔다. 10년간 근무했던 순천여상에서는 국어 선생이던 설재록 작가를 만났다. 그의 권유로 ‘순천문화’ 창간 멤버가 됐고 자연스레 정기적으로 시를 쓰게 됐다. “이번에 스스로 공부 많이 했어요. 제 작품에 자유로움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스러움, 자연스러움은 억지로 만들면 감동이 덜하죠.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진짜인데, 이국에 머물며 변화에 많이 흐트러지고, 말로만 영혼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게 큰 소독입니다. 거기서 했던 작업들을 하나의 형식으로 완성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가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지아공화국의 고도(古都) 트빌리시에서 10개월의 여정을 보낸 작가는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렸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울 때도 있었고, 시간은 마냥 더디게 흘러 ‘초(秒)’가 지나가는 것마저 쉼겨 보였다. 그때 그의 동반자가 되어 준 그림, 시, 와인, 그리고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협주곡’과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었다.

지난해 12월 광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손에는 25호 크기의 작품 360장이 들려있었다. ‘시가 찾아오면 일기처럼’ 썼던 70여편의 시도 함께였다. 엄청난 작업량이었다. 며칠전, 한희원미술관에 걸린 그 때의 작업물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의 생애, 가장 밝은 색깔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가 생애 첫 책을 냈다. 이번엔 출간한 건 ‘시화집’이다. 재수생 시절부터 그가 늘 품고 있던 시를 쓰는 일과 45년 동안 계속돼온 그림 그리는 일이 하나로 합쳐진 작업이다. 첫 책이라니 의외였다. 오래 전부터 ‘시를 쓰는 화가’로 알려진 데다 팜플릿 등에 실린 글들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작가가 ‘이방인의 소묘-트빌리시에서 보낸 영혼의 일기’(코리아 books)를 펴내고 기념전시회, 소박한 시노래 음악회를 연다. 전시회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문화예술공간 김넷과서 열린다. 290여페이지 분량의 시화집에는 ‘마르타아르헤리의 밤’ 등 외국에서 쓴 시 40편, 지금까지 쓴 시 49편 등 89여편과 그림 70점이 실렸다.

한 작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방인으로 살았다. 몇년 전 스스로 고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 지인과 함께 떠난 트빌리시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장기 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트빌리시 생활은 녹록

진득한 유희 작업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해 한번도 아크릴 작업을 한 적이 없었던 그는 건조 시간이 빠르고 짙은 색감을 보여주는 아크릴 작업에 몰두했다. 나이프로 찍어바르고, 뿌리고, 철심으로 긁는 등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작 중에는 아코디언을 켜는 늙은 할아버지 등 다양한 인물들이 눈에 띈다.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민중미술을 했던 80년대를 제외하고는 30년간 인물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곳 음악인들은, 연주 자체에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격렬하고, 때론 사색적으로 생을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인물을 통해 그런 인생을 그려내고 싶었죠. 인간의 궁극적인, 근본적 문제를 탐하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모습 역시 마음에 남아 화폭에 담으려 했습니다. 고색창연한 느낌과 화려한 디자인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동시에 담아내려하니 색감은 저절로 밝아질 수밖에 없었구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에 돌아와 작업한 150호 유희 작품을 비롯해 현장에서 그렸던 300여점의 작품을 모두 보여주려한다.

시는 오랜 동안 한 작가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었다. 시인 친구-후배도 많다. 이번에 시화집에는 한 작가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집

국윤미술관 'Re & New' 전... 국중효·양나희 작가 등 5명 참여

서양화가 국중효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소장품을 연계한 기획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Re & New'는 국작가가 1980년대 초반 작업했던 '우리 동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한 전시다. 서민적 정서를 화폭에 담은 국작가의 그림 중 '우리 동네'는 견고하고 독특한 질감과 저채도의 색상으로 뽀뽀하게 집들이 들어선 산동네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양희정 작 '우리'

이번 전시에는 국중효 작가를 비롯해 미디어 아트, 설치,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집'을 소재로 작업한 4명의 작가를 초청해 전시회를 꾸렸다.

사람이 살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집은 시대에 따라 외관적 형태는 달라져 왔지만, 그 안에 구성원의 다양한 기억과 풍부한 이야기, 다채로운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각각의 재료와 표현으로 다양한 집의 형상을 표현하는 작가들은 집 속에 담긴 스토리와 함께 각각의 집들이 모여 이루어진 우리 이웃, 우리 동네의 모습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양나희 작가는 골판지를 오브제로 활용하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마을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관람객을 만나며 양희정 작가는 목포 구도심의 집을 설치 작품으로 보여준다. 또 도에 작업을 진행하는 정지운 작가는 '사(思) 유(惟)' 시리즈를 전시하며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화 작가는 '종이집'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해설과 함께 '오페라로 사랑배우기'

13일 광주아트홀

사랑을 주제로 한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라로 사랑배우기'가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특성화 극장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사랑의묘약' 중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돈조반니' 중 '그대여 창가로 오세요',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춘희' 중 '파리를 떠나서' 등이다. 또 오페라 '코지판투테' 중 '모든 행복과 기쁨', '춘향가' 중 '사랑가' 등도 무대에 올린다.

최명식(빛소리오페라단장)이 총감독을 맡았고 박미애(광주대 교수)가 해설자로 나서 오페라 아리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소프라노 윤희정·장희정·박미애, 테너 이원용·장호영, 바리톤 김대수·



박미애 장호영

김지옥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은 오페라 '마술피리', '버섯피자', 창작오페라 '꽃 지어 꽃피고' 등 작품으로 29회의 정기공연을 했으며 도서벽지, 격오주 주민,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700여회의 순회·초청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폭넓은 음악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f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행사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